

멋쟁이 아저씨

권 경 속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초가을의 기운이 창밖의 나뭇잎 색을 예쁘게 물들여 갈 즈음, 병실 창가 옆 침대에 정갈이 누워계신 환자분을 만났다. 말을 걸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사색과 시름이 찡그린 미간에 몰려 있었고, 옆에는 딸과 아들로 보이는 자식들이 아무 말 없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름한 얼굴에 짙은 갈색 안경을 끼시고, 약간 흰빛 안색이 어딘가 모르게 멋쟁이 아저씨란 인상이 들어와 첫인사를 할 용기가 났다.

“안녕하세요? 멋쟁이 아저씨네요. 안경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글을 잘 쓰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부러워요.” 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1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고생만 시키고 보낸 부인 생각에 더욱 더 보고 싶고 죄스럽다고 연신 눈물을 닦으셨다. 3년간 병간호 해 주었지만, 부인이 갔을 땐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신다. 아저씨는 2살 때 부모를 잃으시어 작은집에서 자랐으며, 초등교육 밖에 못 받으시고 전기기술을 익히시어 지금까지 애들 키우며 살아오셨다고 하신다. 그런데, 살아오신 흔적이 아저씨 외모에서는 매우 올곧고 양심적이며, 성실히 사셨음이 여실히 풍겨주고 계셨다. 군산이 집이지만, 대전에 큰딸이 있어 성모병원 입원하였으며, 그 딸이 천주교 집에 출가해 딸의 권고와 부인의 대세로도 이미 조금 천주교에 마음이 닿아 계셨다. 6층에 입원 후 20일 정도 계속 물도 못 드셨는데, 꿈에 신부님이 나타나시어 알약을 주신 후 병원약과 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신다. 또한, 옆 환자 봉성체 오시는 신부님의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 천주교는 멋있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며, 신자가 되기로 맘을 먹게 된 듯하다.

그 후 신부님께서 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 봉사자들은 매일 돌아가며 교리를 하였다. 아저씨는 쇠진한 기력도 잘 참아내시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셨고, 평소 생각이 깊고 지혜로우시어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요셉이란 주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었다. 영세를 받고 나서도 매우 겸손히 죄 많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냐고 하시며 평평 흘리는 눈물로 매일매일 속죄를 구하셨다.

첫 만남 : 한 시간 정도의 긴 만남이었다.

어두운 표정으로 계시어, 이런 정적의 시간을 보낸 지금 자식과 보내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격이니, 추억이 되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좋겠다고 권하니, 깊은 생각 후에 응하셨음. 앞으로 노력해 보자는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끼워 하니, 엄지로 도장 복사도 찍자고 하심. 이런 기회가 자식은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아빠는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보자고 함. 표정이 한결 밝아 지셨음.

둘째만남 : 의사들이 배짱이 없다고 투덜대심, 거의 한달 계속 금식이 맘에 안 든다고 하시어, 간호사에게 알리고 주치의사의 아주 맑은 미음은 드실 수 있는 허락을 받음. 곧바로 일출 죽 집에 딸과 함께 가서 미음을 만들어와 드시게 함. 천천히 속을 달래가며 드시는 모습에 환자와 가족 모두 안도의 숨을 쉬. 빨리 나오시어 군산 바다 보러가자고 용기를 드림. 금방 나올듯한 기운을 보이심.

셋째 만남 :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보이시어, 목

육으로 기분 전환 권하니, 내키지는 않아하심. 주 말이니 기분전환 겸으로 부인과 아이들과 여행 갔을 때 기분 생각 해 보자고 설득해 오후에 목욕하기로 함. 오늘 기분에 대해 여쭙니, 의사가 미운 것이 힘 드신다고 하신다. 의료진 모두는 하느님이 보내신 아저씨의 협조자이시니,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하며, 아저씨 인생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 오신 분은 창조주 주님이시니 모두 그분께 맡기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십사 기도 하자고 권함.

어린아이처럼 대답을 잘 하심.

넷째 만남 : 삼위일체와 성체에 대해 교리 함.

죄가 많으니 그 죄를 꾸짖어 주시고, 또 용서 할 것이 있으시면 용서 구하시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십사 그 기도도 하셨다고 하심. 꿈속에 부인이 보이신다고 날 데려 갈 모양이라 하심. 그러면 좋으시냐고 여쭙니, 생각에 잠기신다. 부인이 마리야니 요셉 세례명을 여쭙니, 딸과 의논하시겠다고 하심. 요셉성인에 대해 알려드리니 가슴 깊이 새기듯 들으심. 아저씨의 자애로 우신 모습이 많이 닮으시어 주님도 아시고 미리 점 찍어놓으신 것 같다고 함.

다섯 번째 만남: 그저께 새벽에 영세하셨고, 그 날 금식도 풀려서 죽도 드셨다고 함. 죄가 많은데 영세를 받았다고 하시어, 영세식에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으신 것이며, 지금부터 다시 잘 사시는 것이 아저씨의 할 일 이시니. 병원 입원 환자들과 가난한 이와 모든 의료진들 신부님과 수녀님들 또 저희 봉사자들 위해서도 해 주시면, 침대에서 가장 큰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림. 눈빛이 잘 위안이 되신 듯 함. 오후에 머리 감겨드리니 시원해 하시며, 엄지손가락으로 '최고' 표시를 해 주심.

영세 때에 찍은 사진을 수녀님과 함께 전달 함. 내가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왔냐고 하심. 병원 입원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행운도 얻으셨다고 함.

여섯 번째 만남 : 간병인이 말끔히 면도 해 주시어 정갈하게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심. 손에 부종이 생겨 부종 마사지 해 드리며, 주님의 뜻과 아저씨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 하니 함께 하셨음. 딸이 나아진듯하지만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함.

일곱 번째 만남 : 밤낮이 바뀌어 주무신다고 함. 일주일간 계속 그러시다고 함.

그 후, 3일 후 아침, 자식들과 의료진, 봉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심. 창밖의 단풍이 제법 깊게 물든 늦은 가을 어느 날, 멧쟁이 아저씨는 가을을 모두 갖고, 사랑과 겸손은 남기시고 먼 하늘로 그리던 부인 곁에 그리고, 영원한 주님 품으로 가시었다. 한 달 반 정도의 입원이었지만, 요셉 아저씨는 좀 다른 환자이셨다. 대화를 나눌 때는 매우 숙고한 자세이셨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사색의 눈빛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지혜를 찾는 듯 했다. 봉사자에게도 항상 힘이 드셔도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으시며, 본인의 솔직한 심정도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으며, 호스피스적인 대화가 잘 이뤄진 모범적인 분이셨다. 60평생 살아오신 삶이 짧지만, 진실하게 살아오신 삶은 분명 주님께서 마지막에 거두어도 될 만큼 이미 주님의 자식이셨는듯한 생각이 든다.

요셉아저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부인 곁에서 편안히 잘 지내시죠?

아저씨의 고생을 주님께서 다 갚아 주셨을 겁니다.

자식들은 아마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시니 더 행복하시기에 맘 놓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멧쟁이 아저씨, 행복하세요!!!!